

백석의 맛

꿈꾸는 진주(眞珠)여 바다로 가자

김기림

마네킹의 목에 걸려서 까물치는
진주(眞珠)목도리의 새파란 눈동자는
남양(南洋)의 물결에 저저있고나.
바다의 안개에 흐려 있는 파—란 향수(鄉愁)를 감추기 위하여 너는 일부러 병어리를
꾸미는 줄 나는 안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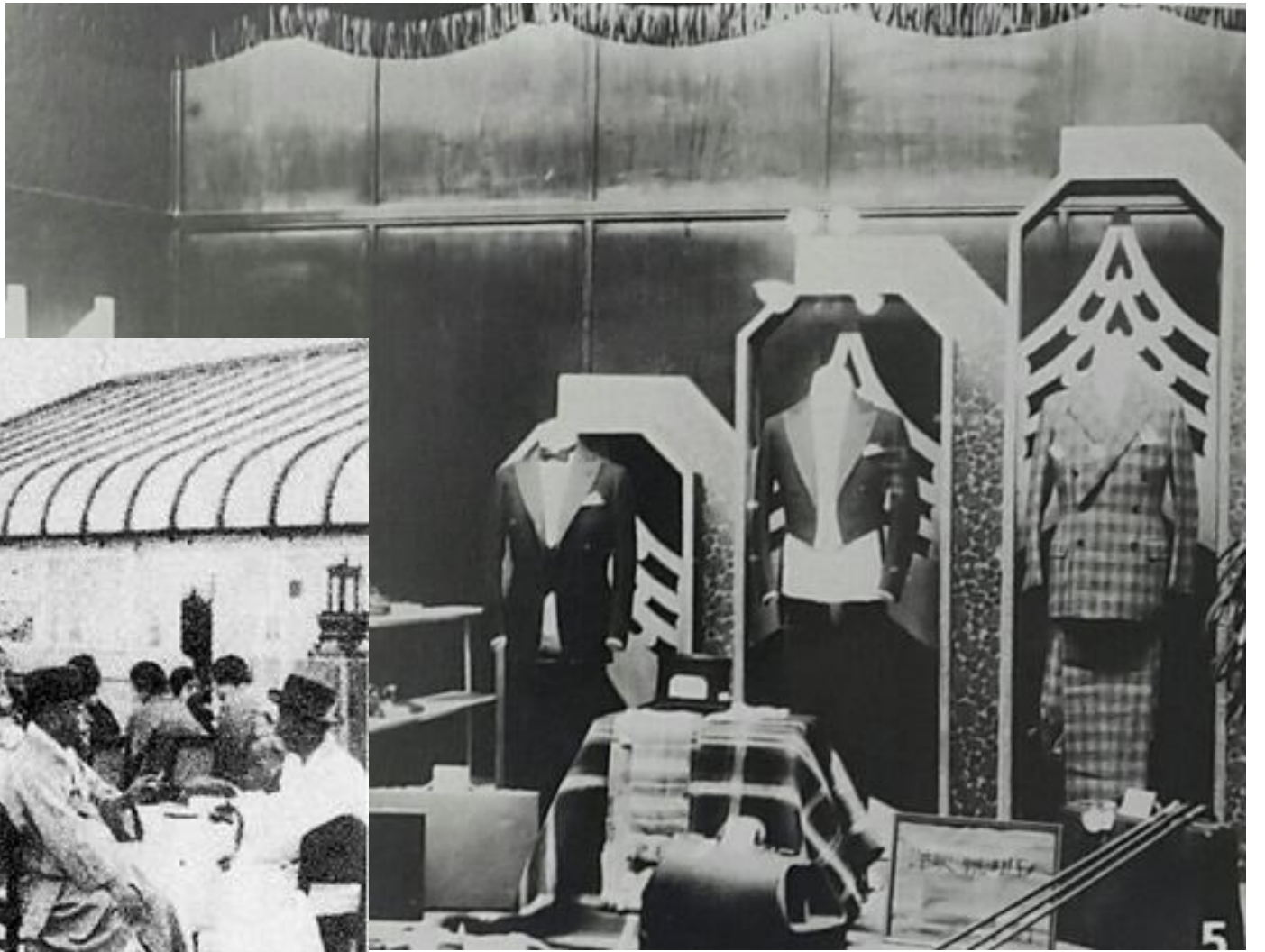
너의 말없는 눈동자 속에서는
열대(熱帶)의 태양(太陽) 아래 과일은 붉을게다.
키다리 야자수(椰子樹)는
하늘의 구름을 붙잡으려고
네 활개를 저으며 춤을 추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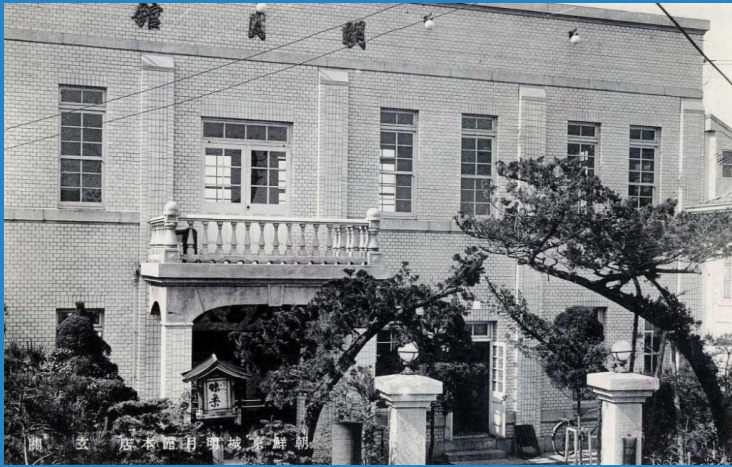
바다에는 달이 빠져 피를 흘려서
미쳐서 날뛰며 몸부림치는 물결 위에
오늘도 네가 듣고 싶어하는 독목주(獨木舟)의 노젓는 소리는
빼—걱 빼—걱
유랑할 게다.

영원(永遠)의 성장(成長)을 숨쉬는 해초(海草)의 자지빛 산림(山林) 속에서
너에게 키쓰하던 상어(鰐魚)의 딸들이 그립다지.
탄식(歎息)하는 병어리의 눈동자여
너와 나 바다로 아니 가려니?
녹쓰른 두 마음을 잠그려가자
토인(土人)의 여자(女子)의 진흙빛 손가락에서
모래와 함께 새어 버린
너의 행복(幸福)의 조약돌들을 집으러 가자.
바다의 인어(人魚)와 같이 나는
푸른 하늘이 마시고 싶다.

‘페이브먼트’를 때리는 수없는 구두 소리.
진주(眞珠)와 나의 귀는 우리들의 꿈의 육지(陸地)에 부대치는
물결의 속삭임에 기울어진다.

오— 어린 바다여. 나는 네게로 날아가는 날개를 기르고 있다.





내 봄은 명월관 교자 먹기일세.

가령 날이 저물고, 아침밥 기억은 오래된 역사의 한 페이지요, 호주머니 열일곱이 독촉장, 광고지, 먼지 부스러기의 피난처 밖에 못 되고, 돈냥 있는 아는 놈은 일부러 피해 갈 때 마침 명월관 앞을 지나면, 이때 마비돼가는 뇌신경이 현기에 가까운 상상의 반역을 진압할 수가 있겠는가? 없을걸세.

두어 고팡이 '복도'를 지나 으스스한 뒷방으로 들어서거든, 썩 들어서자 첫눈에 뜨인 것이 신선로. 신선로에선 김이 무엇무엇 나는데, 신선로를 둘러 접시, 쟁반, 탕기 등 크고 작은 그릇들이 각기 진미를 받들고 웅위해 선 것이 아니라, 앓았던 말일세. 이것은 소위 교자라. 에헴, '안석'을 등지고 '베개'를 외고, 무엇을 먹을까 우선 총검열을 하겠다."

다 그럴 듯 한데, 급할수록 모름지기 여유가 필요하니 서서히 차려보자. '달걀치냐'를 하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다음으로 어회, 또 다음으로 김치, 이러다 보니, '게장'과 '어리굴젓'이 빠졌구나. 이런 몰상식한 놈들 봤나.

- 김상용, <봄을 기다리는 맘>, 《동아일보》(1935.2.23)

국수

눈이 많이 와서

산엿새가 벌로 내려 맥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 옆 은땡이 예데가리 밭에서

하로밤 뽕오얀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명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넷날 한가하고 즐겁든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녀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텅텅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 둔덕에 함박눈이 폭폭 쌓이는 여늬 하로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기사발에 그득히 사리워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곶의 잔등에 업혀서 길러났다는 먼 넷적 큰 마니가

또 그 집등색이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넘엿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바지기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찜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땡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펍의 고기를 좋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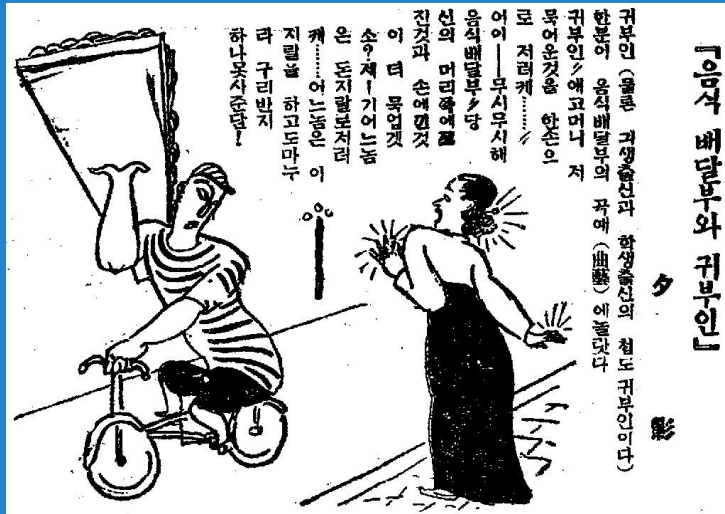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육한 더북한 샷방 찢찢 끓는 아루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枯淡)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비밀가정탐방기, 변장기자=냉면배 달부가 되어서> (별건곤 48호, 1932.2)



전차 길거리를 나스니 길이 넓고 휘-나한 바람에 익숙지 못한
운전(運轉)숨시나마 속력노키에 매우 편하다. 종로 네거리를 조심조심 건너
종각(鐘閣)뒤로 꼬부러 드렀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레코-드 소리를 듣는등
마는등 다시 꼬부러져 평양루 냉면집 좁은 골목을 속력을 나추어 드르는데
쓰러질듯 말듯 개천을 피하느라고 어리둥하다가 압혜슨 전주(電柱)에 코꽂이
다을 지경이 되였다. 위기일발! 핸들을 얼른 다른 쪽으로 들렸스나 벌써 느졌다.
목판 한 구통이가 전주와 덜컥 부다치며 냉면 그릇이 뒤로 밧그러졌다.
"앗 차차." 소리를 치며 자전거를 멈추고 목판을 내려노코 보니 천만다행으로
냉면 그릇은 깃닥업고 김치 그릇이 뒤업허졌고 장국 국물이 삼분일은 업지러져
버렸다. 업허진 화로불을 두 손으로 주어 담드시 응겁질에 장갑 낀 손으로
김치를 주어 담고 생각하니 장차 먹을 사람에게 여간 미안한게 아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러 노은 일 할 수 업는지라 그대로 그릇을 정돈하야 가지고 24X
번지를 차졌다.

(중략)

"다른 그릇에다 싹구 그릇을 내주구려." 주인인 듯한 40먹은 남자가 30되여
보이는 그 녀자에게 일르니까 그 녀자는
"딴 그릇에 옴기면 맛이 업서요." 한다. 그러더니 주전자의 장국을 따루다 말고
"아-니 국물이 요고 뿐이야. 이걸 가지고 엇떠케 먹으란 말이야." 하고 탁 쏜다.
"겨울에는 손님들이 국물을 만이 안 치니깁쇼."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별놈의 냉면집도 다 봤네. 그럼 더 치운 겨울에는
국물업시 비벼먹고 말겠네.... 우리 집에서 냉면을 처음 먹어보는 줄 아나봐
참!"



냉면
다섯그릇째

본시 냉면조화하는 데다가
이렇게 맛이 있는
데야 어찌나
식이위천이지!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하는

味の素
(原島昇)

아지 노 모도

總代理 味の素本舗 株式会社 鈴木商店

우리
음식(음식)은
이것으로

돈적게들이고
쌀본시간으로
맛있게 손쉽게
요리하는 음식
아지 노 모도로

味の素
(原島昇)

總代理 味の素本舗 鈴木商店

북신(北新)
— 서행시초(西行詩抄) 2

거리에는 모밀내가 났다
부처를 위한다는 정갈한 노친네의 내음새 같은 모밀내가 났다

어쩐지 향산(香山) 부처님이 가까웁다는 거린데
국수집에는 농작같은 도야지를 잡아 걸고 국수를 치는 도야지 고기는 돛바늘 같은 털이
드문드문 백였다
나는 이 털도 안 뽑은 도야지 고기를 물구러미 바라보며
또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꺼먼 맨모밀국수에 얹어서 한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가슴에 뜨끈한 것을 느끼며
소수림왕(小獸林王)을 생각한다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을 생각한다

선우사(膳友辭)
-함주시초4

냇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착하디 착해서 세깃은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광어, 문어, 고등어, 평메, 횡대..... 생선이 많지만 모두 한두 끼에 나를 물리게 하고 만다.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이는 이 가재미를 처음 십 전 하나에 뽕가웃씩 되는 것 여섯 마리를 받아들고 왔다.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두 두름 마흔 개에 이십오 전씩에 사오시는데 큰 가재미보다도 잔 것을 내가 좋아해서 모두 손길만큼한 것들이다. 그동안 나는 한 달포 이 고을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재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보이지 않았다. 음력 8월 초승이 되어서야 이 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밥과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침저녁 기뻐하게 되기만 기다린다. 그때엔 또 이십오 전에 두어 두름씩 해서 나와 같이 이 물선을 좋아하는 H한테도 보내어야겠다.

묘지와 뇌옥과 교회당과의 사이에서 생명과 죄와 신을 생각하기 좋은 운흥리(함흥 영생교보가 있던 지역)를 떠나서 오백 년 오래된 이 고을에서도 다 못한 곳, 옛날이 험리지 않은 중리로 왔다. 예서는 물보다 구름이 더 많이 흐르는 성천강이 가깝고 또 백모관봉의 시허연 눈도 바라보인다. 이곳의 좌우로 긴 회(灰)담들이 맞물고 늘어선 좁은 골목이 나는 좋다. 이 골목의 공기는 하이야니 밤꽃의 내음새가 난다. 이 골목을 나는 나귀를 타고 일없이 왔다갔다 하고 싶다. 또 여기서 한 오 리 되는 학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다.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그래 소장 마장을 가보나 나귀는 나지 않는다.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소문해도 나귀를 팔겠다는 데는 없다. 얼마 전엔 어느 아이가 재래종의 조선말 한 필을 사면 어떠냐고 한다. 값을 물었더니 한 오 원 주면 된다고 한다. 이 좀말로 할까고 머리를 기울여도 보았으나 그래도 나는 그 처량한 당나귀가 좋아서 좀더 이놈을 구해보고 있다.

<가재미. 나귀>(조선일보, 1936.9.3)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수박씨, 호박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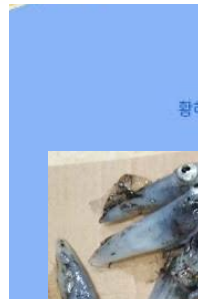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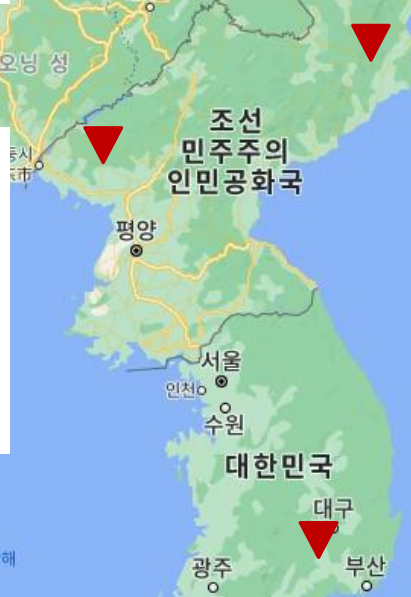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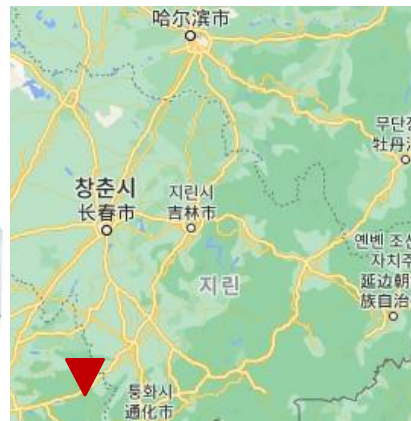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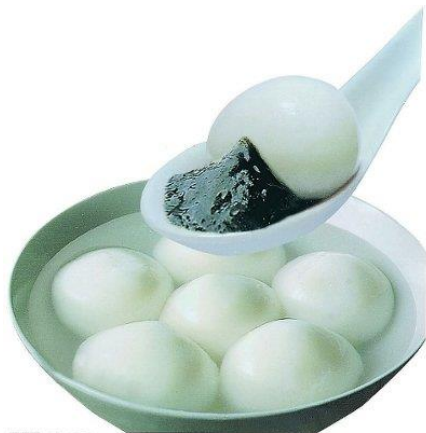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와서
어진 사람의 짓을 어진 사람의 마음을 배워서
수박씨 닮은 것을 호박씨 닮은 것을 입으로 앞니
빨로 밝는다

수박씨 호박씨를 입에 넣는 마음은
참으로 철없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이나
이것은 또 참으로 밝고 그윽하고 깊고 무거운 마
음이라
이 마음 안에 아득하니 오랜 세월이 아득하니 오
랜 지혜가 또 아득하니 오랜 인정이 깃들인 것이
다
태산의 구름도 황하의 물도 옛 임군의 땅과 나무
의 덕도 이 마음 안에 아득하니 보이는 것이다

이 적고 가부엌고 갇족한 희고 까만 씨가
조용하니 또 도고하니 손에서 입으로 입에서 손으
로 오르나리는 때
벌에 우는 새소리도 듣고 싶고 거문고도 한 곡조

뜯고 싶고 한 오천말 남기고 함곡관도 넘어가고
싶고
기쁨이 마음에 뜨는 때에 희고 까만 씨를 앞니로
까서 잔나비가 되고
근심이 마음에 앓는 때는 희고 까만 씨를 혀끝에
몰어 까막까치가 되고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오두미를 버리고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온 사람도
그 옆차개에 수박씨 닮은 것은 호박씨 닮은 것은
있었을 것이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웠던 사람도
그 머리맡에서 수박씨 닮은 것은 호박씨 닮은 것
은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걷어가는 것은 잠푹 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언제나 꼭같은 넥타이를 매고
고흔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걷어가는 것은 또 내 많지 못한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탓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로 코밑수염도 길러보는 탓이고 그리고 어니 가난한 집
부엌으로 달재 생선을 진장에 곳곳이 지진 것은 맛도 있다는 말이 자꼬 들려오는
탓이다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이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 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소리 뽼뽼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두보나 이백같이>

참고문헌

《별건곤》, 《조선일보》

백석 외, 《100년전 우리가 먹은 음식》, 가갸날, 2017.

소래섭, 《백석의 맛》. 프로네시스, 2009.

고형진, <백석의 수필과 시의 연관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63, 우리어문학회, 2019.

조동구, <1930년대 시에 나타난 '근대'의 세 표정>, 《한국문학논총》 76, 한국문학회, 2017.